

작품 내용

제 목	원고지 모퉁이에 남겨진 36.5도의 서명
내 용	화면 속 커서가 서늘하게 깜빡인다. 1초도 쉬지 않고 또박또박 박자를 맞추는 그 정교한 불빛은, 마치 망설임 없이 다음 문장을 내놓으라고 독촉하는 메트로놈 같다. 모니터 너머의 세상은 눈부실 만큼 빠르고 명쾌하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서사를 작성하고, 단 3초도 되지 않아 수천 개의 단어를 폭포처럼 쏟아낸다. 만발한 봄꽃의 화사함이나 떨어지는 가을 잎의 고독이 프롬프트 한 줄로 손쉽게 빚어지는 시대. 기계는 숨을 헐떡이지 않고 가장 매끄럽고 빈틈없는 문장들을 태연하게 내놓는다. 그 거대하고 차가운 글자들의 산맥 앞에서, 책상에 앉아 연필을 쥔 나의 글쓰기는 쓸쓸하고 초라해 보이곤 한다. 내가 밤을 지새우며 읽고 골라낸 단어들이, 기술이 단숨에 뱉어낸 문장보다 아름답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조용한 무력감이었다. 내 방 작은 책상 위, 나만의 문장을 쓰던 밤은 결코 쉽지 않았다. 방 안의 불을 끄고 스탠드 조명 하나에 의지한 채 홀로 원고지를 채워가던 새벽. 마음에 드는 단어 하나를 찾지 못해 수십 번 멈춰 섰고, 생각했던 진심이 종이 위에 온전히 엮어지지 않을 때마다 내 필통 속 연필들은 고통스럽게 마모되었다. 책상 모퉁이와 바닥에는 지우개 가루가 흰 눈송이처럼 하얗게 쌓여갔다. 지워진 문장들은 스러져간 나의 시간이었고, 뭉개진 연필심은 밤의 정적 속에서 내가 흘린 조용한 비명이었다. 새벽 두 시의 고요함 속에서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는 마치 내 마음의 숨소리 같았고, 마음에 와 닿는 표현을 찾지 못해 원고지 모퉁이를 까맣게 칠하며 벽을 바라보던 시간은 기나긴 고독이었다. ‘어차피 손가락 몇 번으로 완벽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세상인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날이 밝고 지우개 가루를 쓸어내릴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종이 위에 깊게 패어 남겨진 연필의 자국들, 지워졌으나 끝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그 옅은 흔적들은 단 한 줄도 헛된 것이 아니었다. 마음에 들지 않아 뭉개버린 문장들이 없었다면, 내 진심이 담긴 그 단 한 줄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 모든 밤의 망설임이 비로소 내 글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으니까. 기계가 만들어낸 문장에는 단 하나의 땀방울도, 단 0.1도의 체온도 섞여 있지 않다. 기계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아득한 간격을 건너며 외로위해 본 적도, 마침표 하나를 찍기 위해 설렘이나 서글픔을 느껴본 적도 없다. 인간의

창작이 위대한 이유는 화려한 결과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완성하기 까지 창작자가 홀로 견뎌낸 밤과 고독의 무게에 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완벽한 단어의 나열 때문이 아니다. 그 글자들 사이에 스며있는 창작자의 36.5도 체온과 꼭꼭 눌러 담은 진심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 내리기 때문이다.

저작권이란 바로 그 거대하고 차가운 기술의 세상 속에서, 창작자가 밤을 지새우며 흘린 눈물과 땀방울을 지켜주는 가장 다정한 울타리이다. 저작권은 단순히 법적인 문구나 재산적 권리를 뜻하는 단단한 울타리가 아니다. 이는 창작자가 홀로 고민하며 밤을 지새운 그 서툰 진심이 참으로 소중하다고 말해주며, 창작자의 외로운 방 위에 따뜻한 지붕을 얹어주는 투명한 집과 같다. 우리가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은, 단순히 규범을 지키는 행위를 넘어 그 글을 쓰기 위해 멈추고 고뇌했던 한 사람의 삶과 시간을 통째로 안아주는 것이다.

나는 정성스레 쓴 글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손가락 끝에 검게 묻어난 연필 자국을 가만히 닦아내며, 내 이름이 적힌 원고지를 쓰다듬는다. 수많은 화면 속 글자들은 빠르게 소비되고 흔적도 없이 잊히겠지만, 우리가 피와 땀으로 꼭꼭 눌러 담은 창작물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이라는 투명한 울타리 안에서 조용히 숨 쉬며, 언젠가 그것을 읽을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온기를 전할 테니까.

이 세상 모든 창작자가 밤을 지새우며 흘린 눈물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그들이 밤새 흘린 조용한 땀방울이 없었다면,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피어난 이 온기 어린 문장들을 결코 읽지 못했을 것이다.